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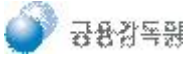

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보 도 자 료</div>				
	보도	2021.3.3.(수) 10:00부터	배포	2021.3.3.(수)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금융지원과장 신 장 수(02-2100-1670)	담 당 자	윤 세 열 사무관(02-2100-1671)
	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 조 성 민(02-3145-8370)		임 연 하 팀 장(02-3145-8372)
	신용정보원 기술정보부장 이 철 흠(02-3705-5938)		서 승 범 팀 장(02-3705-5939)
	금융연구원 부원장 이 재 연(02-3705-6356)		
	산업연구원 신산업실장 김 중 기(044-287-3106)		
	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 유 리(043-531-4251)		

제 목 : 「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플랫폼」 구축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, 新산업 진출 등 선제적 재도약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1 부위원장 모두발언

- 금융위원회는 금일('21.3.3일)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「기업금융 현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회의」를 개최*하였습니다.

*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하여 영상회의로 개최

- 오늘 회의는 「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 플랫폼」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'20년 산업별 기업금융 동향을 점검하였으며,
- 아울러 기존 전통산업 및 新산업별 동향 및 전망,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기업금융 정책과제 등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.

[회의 개요]

- ◆ 일시 / 장소: '21.3.3.(수) 10:00 ~ 11:00 / 영상회의
- ◆ 참석: (금융위) 부위원장, 금융안정지원단장 등
(유관기관) 금감원, 신정원, 금융연구원, 산업연구원, 정보통신정책연구원
(금융기관) 산업, 기업은행, 신용보증기금, 성장금융 등
*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은 부기관장(급) 참석

-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들에게 코로나19로부터의 '회복'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, 코로나19가 앞당긴 산업구조 변화에 기업이 '적응', '선도'할 수 있도록 선제적 사업재편을 동시에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- **(코로나19 2년차의 기업금융 정책)** 기존 위기극복 정책을 유지하면서 핵심 중소·중견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과 新산업 진출 등 기업의 선제적 재도약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 -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하여 비대면·디지털 경제로의 이행, 친환경·저탄소 경제로 전환 등 경제·산업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
 - 상대적으로 중소·중견기업은 사업재편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,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선도적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 - 이와 함께,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증가한 기업부채가 잠재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과 연계하여,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- **(기업금융 플랫폼 구축)** 「기업금융 플랫폼」 구축을 통해 효율적 자금지원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 - 이를 위해 新산업 기술변화, 산업간 융복합 등 경제·산업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 산업분류와 기업금융분류 기준을 마련하고,
 - 다양한 기업금융 데이터를 비롯한 산업 업황 데이터들을 집중하여 통합·관리·분석하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

- ①혁신적 사업재편과 선제적 재도약 노력을 지원하고, ②新산업 생태계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도를 높여 디지털·그린분야를 통한 경제대 전환 노력에 맞춰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 자금지원의 토대를 마련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- 아울러 적극적 자금지원과 함께 산업동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으로 특정분야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③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
□ 마지막으로, 산업분류와 기업금융 분류에 기초한 플랫폼은 기업금융 정책의 토대이며, 기업금융의 산업간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을 제고하는 시발점이니 만큼, 금융권과 관계부처의 협력을 당부 하였습니다.

3 주요 논의내용

- **(포스트 코로나19 기업금융 정책과제)** 금융연구원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국면의 기업금융 정책은 시장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, 기술 또는 사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확대, ESG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금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
 - 특히,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기업부채 건전성을 모니터링 하고,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다양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- **(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방안)** 금융위에서는 ① 체계적인 산업분류 및 기업금융 분류체계 개편, ②기업금융 플랫폼 구축, ③기업금융 현황점검 및 정책 효과성 평가 등을 골자로 하는 「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플랫폼」 구축방안 및 운영계획을 관계기관들과 논의하였습니다.

- ☐ **(주요 산업 동향 및 전망)** 기존 주력산업*과 주요 新산업**분야의 동향과 전망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산업은행, 산업연구원,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과 점검하였습니다.

- **(기업금융 동향)** 코로나19 피해업종과 수혜업종별로 금융권 여신, 시장성 차입금 등 자금조달 여권과 연체율 등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였습니다.